



2020 대전시 성평등지수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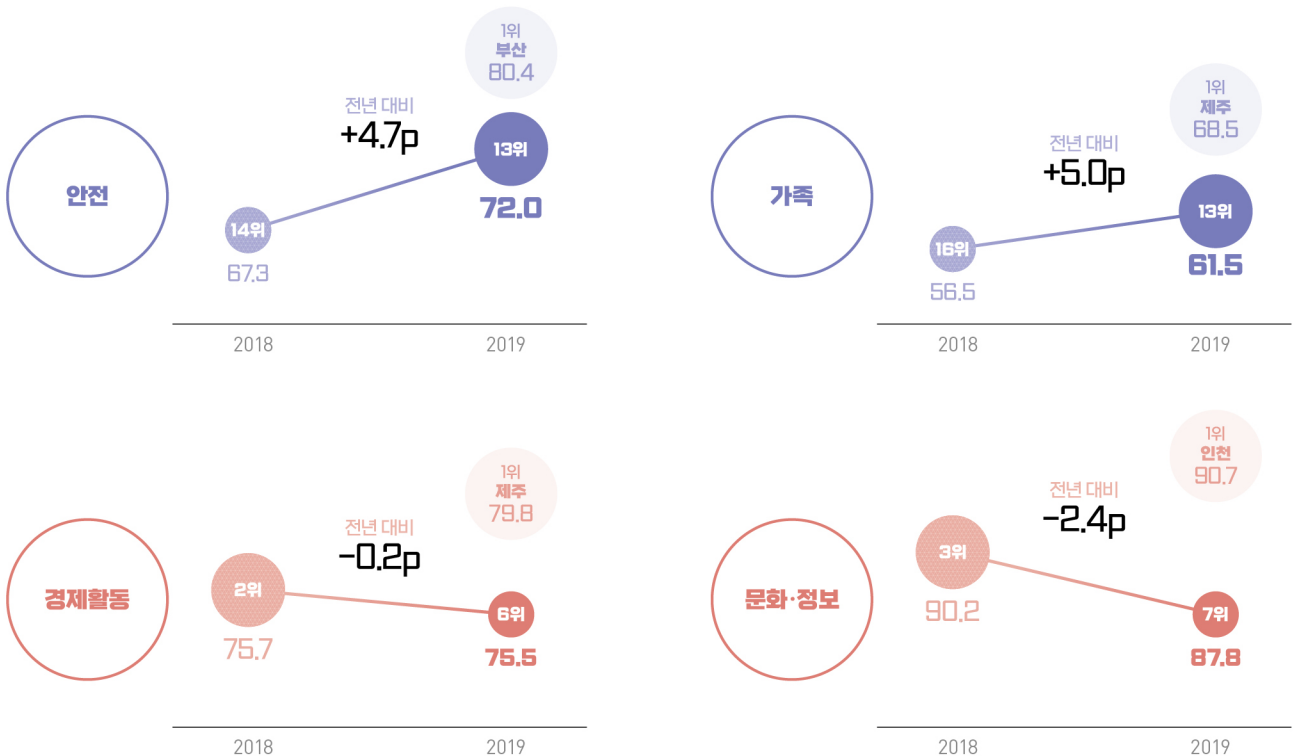
지역성평등지수는 지역별·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비교하여 취약한 분야 및 지표를 파악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여성 정책 수립, 정책 우선순위 설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따라서 세부 지표별 성평등지수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취약 지표에 주목해야 한다. 대전은 2014년 이래 2018년을 제외하고 성평등 수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안전'과 '가족' 분야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한 '경제활동'과 '문화·정보' 분야에 대해서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하위권인 '안전'과 '가족', 하락한 '경제활동'과 '문화·정보'

2019년 기준 '안전' 분야는 전년(67.3점) 대비 4.7점 증가했으나 순위는 16개 시·도 중 13위(72.0점)로 한 단계 상승에 그쳤다. 이는 분야 1위 지역인 부산(80.4점)과 비교해도 8.4점 낮은 수준이다. '가족' 분야는 2018년(56.5점) 16위에서 5.0점 상승하면서 13위(61.5점)로 끝내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분야 1위 지역인 제주(68.5점)보다 7.0점 낮다. '경제활동'은 2018년 75.7점에서 2019년 75.5점으로 0.2점 낮아졌고, '문화·정보'는 2019년 87.8점으로 전년(90.2점) 대비 2.4점 낮다. 순위는 '경제활동' 6위, '문화·정보' 7위로 2018년과 비교해 상위에서 중상위로 하락했다.

대전시 성평등 개선 및 점검 필요한 분야

단위: 점(완전 성평등=100.0)



*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8개 분야) ① 경제활동, ② 의사결정, ③ 교육·직업훈련, ④ 복지, ⑤ 보건, ⑥ 안전, ⑦ 가족, ⑧ 문화·정보
 * 지표는 성비로 파악
 * 완전 성평등한 상태를 100점으로 산정하며, 지수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성평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 출처: 여성가족부, 『2020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취약분야에 영향을 미친 지표를 살펴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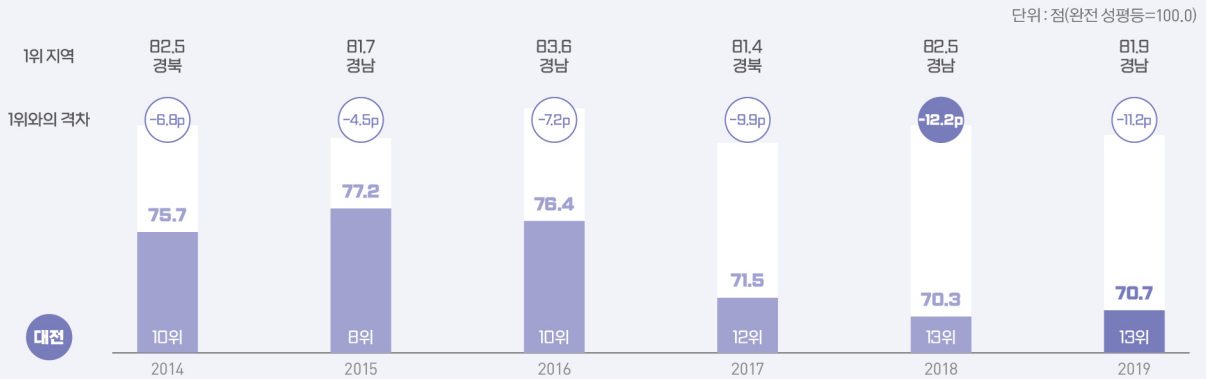
대전의 '안전'과 '가족', '경제활동'과 '문화·정보' 분야 성평등지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세부 지표 네 가지의 변화를 살펴보고 현황을 집중 조명하고자 한다.

*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 출처: 여성가족부, 『2020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분야1 안전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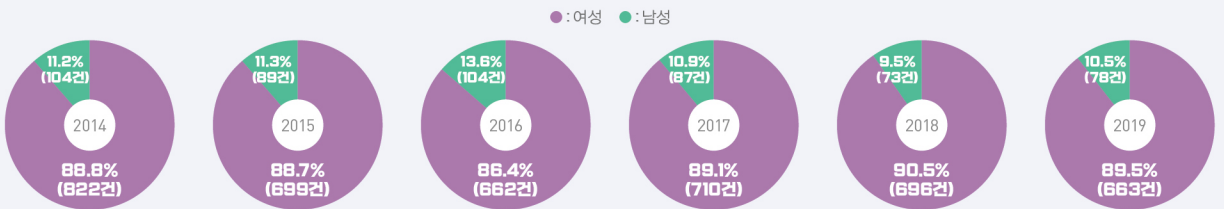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지수

대전의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지표는 2019년 70.7점으로 2014년(75.7점)과 비교할 때 5.0점 하락했다.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인 경남(81.9점)보다 11.2점이나 낮은 수준이다.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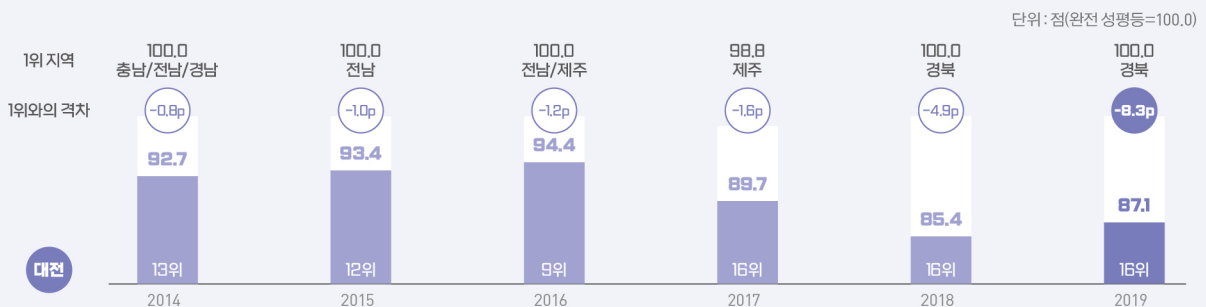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88.8%에서 미미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다가 2017년 89.1%로 전년 대비 2.7%p 상승했다. 2018년에는 90.5%로 가장 높은 강력범죄 여성 피해 비율을 보였으며, 2019년 (89.5%) 다소 감소했다.



분야2 가족²⁾

'가족관계 만족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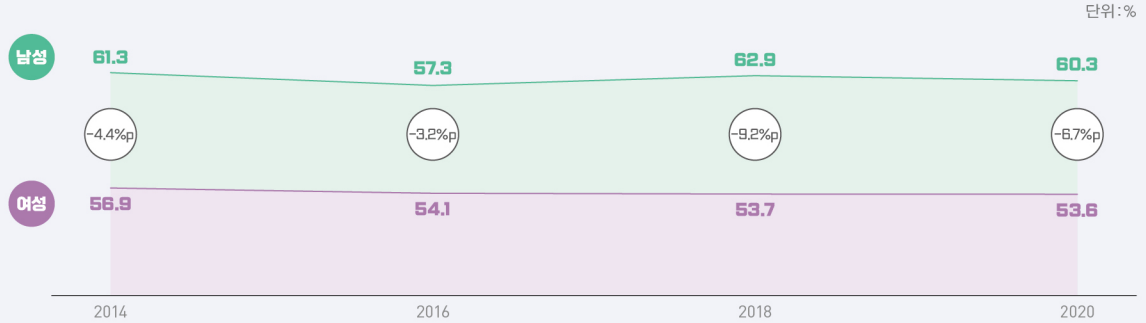
대전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2016년(94.4점)까지 소폭 상승했으나 2017년(89.7점)부터 하락세를 보이면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에 정체되어 있다. 2019년 87.1점으로 1위 경북(100.0점)보다 8.3점 낮다.



1) 안전 분야 세부 지표 ①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②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2) 가족 분야 세부 지표 ① 가사노동 시간, ② 가족관계 만족도, ③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④ 육아휴직자

'가족관계 만족도' 비율

2014년 여성 응답자 중 56.9%가 가족관계에 '만족한다'고 했으며, 남성보다 4.4%p 낮다. 남녀 차이는 2018년 9.2%p까지 벌어져 2014년 이래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2020년 격차는 6.7%p로 다소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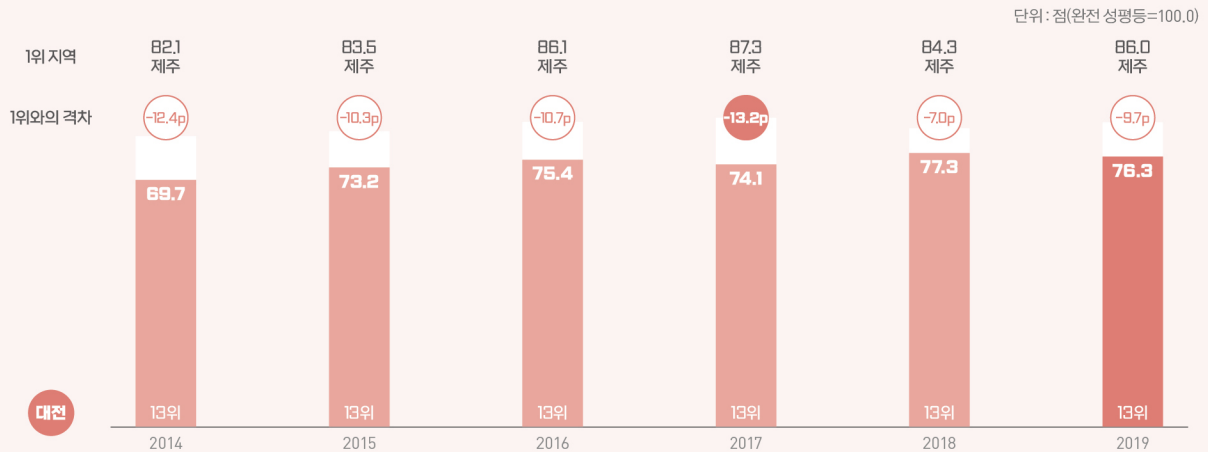


* 2010년 이전은 15세 이상, 2012년 이후는 13세 이상임
 * 가족관계 만족도는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의 합임
 * 원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분야3 경제활동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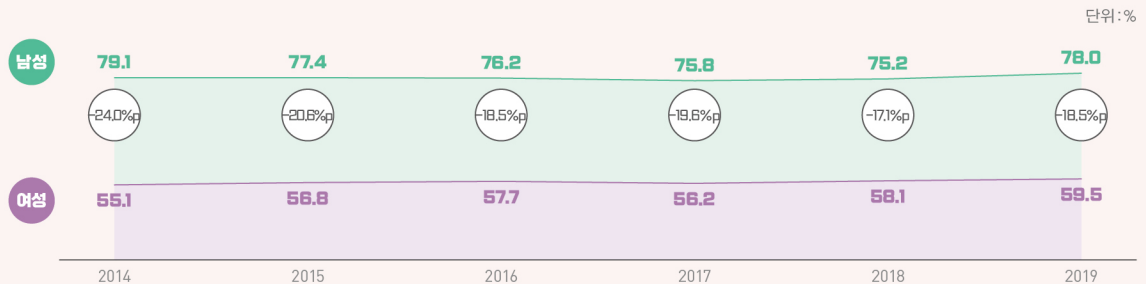
'경제활동참가율' 지수

대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7년 다소 주춤했지만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던 지표였으나 2019년 전년(77.3점) 대비 1.0점 낮아진 76.3점으로 순위는 다섯 단계 하락했다. 1위를 차지한 제주(86.0점)보다 9.7점 낮은 수준이다.



'경제활동참가율' 현황

2014년 대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55.1%)은 남성(79.1%)에 비해 24.0%p 낮았으나 격차가 점차 완화되어 2018년 남성 대비 여성 -17.1%p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9년 격차는 전년보다 다소 심화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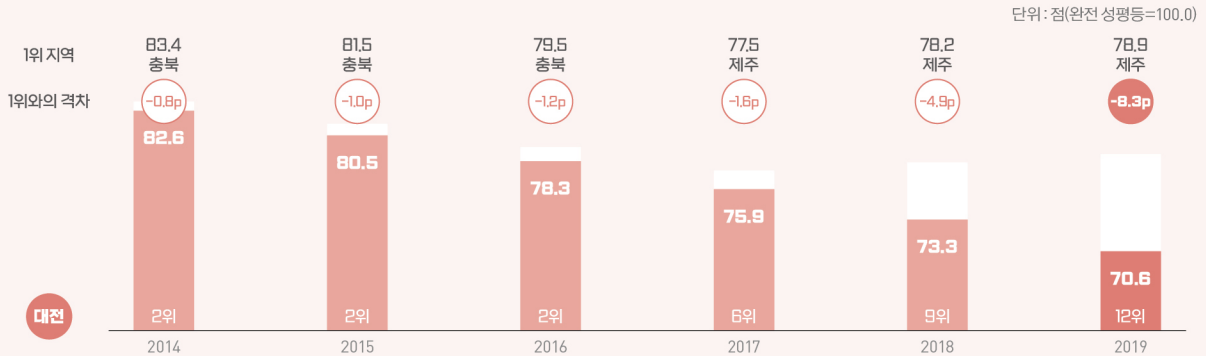


* 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
 * 2012년은 4분기, 2013년 이후는 하반기 자료임
 * 원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분야 4 문화·정보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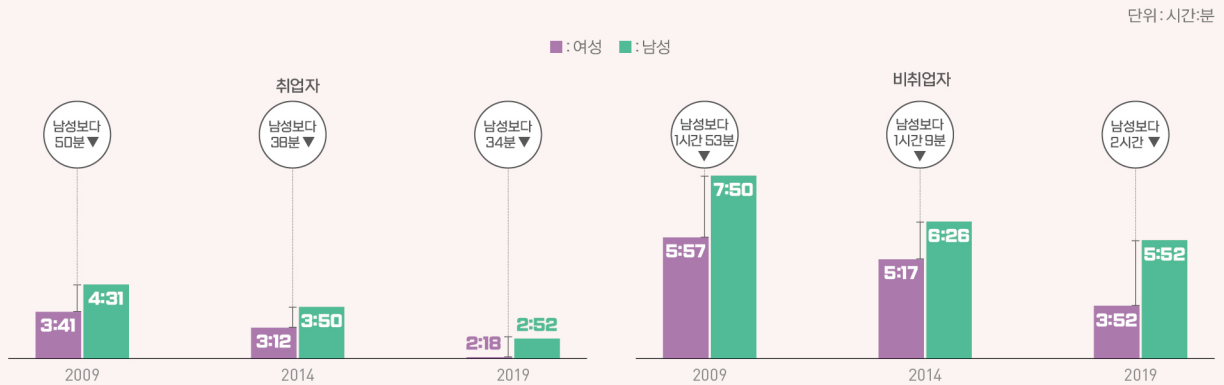
‘여가시간’ 지수

2016년(78.3점)까지 상위권을 유지하던 대전의 ‘여가시간’ 성평등지수는 계속해서 하락 추이를 보이면서 2019년(70.6점) 12위까지 밀려났다. 2014년 0.8점이었던 1위와의 격차는 8.3점까지 벌어졌다.



‘여가시간’ 현황

‘여가시간’을 취업 여부로 구분해 살펴보면 성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009년 대전 남성 취업자는 여가에 여성보다 50분 더 사용했으나, 2019년 34분으로 줄었다. 반면 비취업자의 격차는 2009년 1시간 53분에서 2019년 2시간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 20세 이상 인구 중 교제활동, 미디어이용, 종교활동, 관람 및 문화적 행사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일반인 학습 등과 관련된 교제와 여가활동 시간을 말함
* 원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분석

4) 문화·정보분야 세부 지표 ① 여가시간, ② 여가만족도, ③ 인터넷 이용률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10주년×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Woman Is Everywhere”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센터 10주년과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대전세종연구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했다. 올해 캠페인 주제인 ‘여성리더십: 코로나 19의 세상에서 공평한 미래를 획득하여 세대평등으로 가는 길을 조직 내에서 실천하고자 ‘나는 이런 평등한 직장이 좋더라’를 주제로 연구원 구성원 각자가 생각하는 메시지 카드를 받아 전시하고 공유했다. 그리고 3월 8일 아침, 보라색 드레스 코드를 맞춰 입고 출근하는 연구원들에게 ‘Woman Is Everywhere’을 새긴 티셔츠를 나눠주면서 ‘3.8 세계여성의 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3.8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에서 시작됐으며, 1977년부터 UN은 3월 8일을 특정해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했다.